

## 심리·상담 서비스의 명칭, 범위, 업무 탐색: 상담심리사와 일반인 집단의 인식을 중심으로

성현모	양난미	하재필	이상민 <sup>†</sup>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경상국립대학교 박사과정	고려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2022년 발의된 심리·상담 관련 법안들에 의해 쟁점으로 떠오른 심리·상담 서비스의 명칭, 범위, 업무에 대해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 상담심리사와 일반인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총 882명의 상담심리사와 799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담심리사와 일반인 집단 모두 서비스의 명칭으로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국가자격의 명칭으로는 ‘심리상담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의 범위에 대한 질문에서는 상담심리사 집단은 부부 및 가족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등 분야가 상당 부분 포함된다고 응답하였으나, 일반인 집단은 종교계 상담을 제외한 영역들이 전반적으로 전문적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의 업무 범위에 대한 질문에서는 상담심리사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업무를 가장 비중이 큰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심리검사 및 평가 업무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상담 법제화 관련 논의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고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심리·상담 서비스, 국가자격, 상담심리사, 대중 인식, 업무분석

<sup>†</sup> 교신저자 : 이상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2306, E-mail: leesang@korea.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세월호, 가슴기 살균제 등 사회적 재난과 함께 국민의 마음건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상담센터와 제공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2,800개가 넘는 기관에서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을 발급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 하지만 민간자격의 등록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일정한 기준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김인규, 2018), 심지어는 하루 만에 취득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한 자격이 운영되거나, 내담자들이 심리·상담 서비스 과정에서 성추행과 같은 범죄에 노출되는 등(국민일보, 2022.05.23., 2022.06.09.)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들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2022년 8월 현재까지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에 관한 기준과 중앙부처의 관리·감독 기능을 규정하는 4개의 법률안(심리상담사법안,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리사법안, 상담사법안)이 발의되었다. 정부가 심리·상담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검토하겠다는 계획(관계부처 합동, 2021)을 발표한 이후,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심리·상담 분야의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심리·상담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민간 전문인력의 배출을 담당해 온 심리학계와 상담학계 사이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예: 중앙일보, 2022.04.01.).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일정 수준의 전문성이 보장된 인력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각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개념 정의, 범위,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양 학계 간의 의견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심리학회의 경우 심리상담사 관련 법안들에서 제안한 전문성의 기준이 OECD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기에 오히려 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반면(예: 서울신문, 2022.04.04.), 한국상담학회에서는 심리사법안의 자격 기준이 국내의 다른 전문자격들과 비교하였을 때 지나치게 높은 자격을 설정하여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며, 특정 분야의 소수 인력에만 심리·상담 업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한국상담학회, 2022.05.09.).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 ‘심리서비스 활성화 위한 제도 정립 연구’를 수탁하였고, 보사연은 해당 연구 진행을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5개 단체(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진흥협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와 서비스 전달체계 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개 단체(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2022년 5월 구성하여 이해당사자 간 의견차가 존재하는 여러 요소들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22.06.09.; 한국상담학회, 2022.09.08.)

본 연구는 보사연이 협의체 소속 학회에 요청한 질의에 응답하기 위해 한국상담심리학회 학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한국상담심리학회, 2022.05.31.)를 학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상담

심리학회가 상담심리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과 동일한 설문을 심리 또는 상담을 전공하지 않은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이 두 집단이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정아(2021)는 심리·상담 분야의 법제화 과정에서 숙고하여야 할 주요 내용을 자격명, 직무범위, 응시 자격요건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들 중 자격명과 직무범위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심리·상담 서비스가 법 제정을 통해 제도화될 경우, 응시 자격요건에 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추후 가능할 수 있지만, 자격명과 직무의 범위는 상위법에 직접 규정될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전문서비스와 그 국가자격의 명칭, 서비스에 포함될 영역과 범위, 국가자격자의 업무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이해 당사자 간 견해차를 좁히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심리·상담 서비스와 이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조사는 심리·상담 전문인력과 더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예: 성현모 등, 2022; 손난희, 김은정, 2007; 안하얀 등, 2019; 연규진 등, 2016; 최윤미, 2003; 최혜윤, 김은하, 2021a, 2021b). 이러한 연구들은 심리·상담직의 전문적으로서의 정체성과 직무분석, 심리·상담 전문직과 유관직종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 등을 비교함으로써 심리·상담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가 현재 법제화 논의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의견대립을 발생시키는 요소들을 주제로 수행되지는 않았기에, 법제화 논의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로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심리·상담 전문직의 명칭이 상담가, 심리상담사, 상담전문가 등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나 전문성 수준과 관련된 일관된 정의는 부재한 실정이다. 법률로써 정해질 국가자격의 명칭은 그 자격이 내포하고 있는 전문성과 역량 수준 등 다양한 질적 기준의 측면에서 대중의 기대수준을 반영하고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Buckman et al., 2018).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떠한 자격의 명칭을 접했을 때 대중이 쉽게 그 자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학부모 대상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 235명 중 1/3에 이르는 학부모들이 정신건강 관련 전문직들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으며(Richardson, 2001),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최근의 연구에서도 어디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아는 것은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Lee & Shin, 2020). 그러므로 대중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제공받을 서비스의 전문성은 어떠한지’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명칭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내세우고 있는 서비스와 자격의 명칭은 ‘심리상담서비스’ 및 ‘심리상담사’(심리상담사법안,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리서비스’ 및 ‘심리사’(심리사법안), ‘상담서비스’ 및 ‘상담사’(상담사법안) 등이다. 이러한 명칭 중 어떠한 명칭이 제공할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을

잘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여러 학문적·이론적 바탕 하에 행해지고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 또한 제도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논의주제 중 하나이다. 미국심리학회 학술지 중 상담심리 분야를 다루는 대표 학술지인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집단상담과 관련된 원고들에 대해서는 출판을 거절했을 정도로 학문적·실무적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하고 있었으나(Morril et al., 1974), 70년대에 이르자 상담심리는 여러 응용심리 분야 중 그 범위가 가장 넓은 전문분야로 자리 잡았다(Ivey, 1979). 상담심리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임상심리와 상호 중첩되는 부분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Goodyear et al., 2000), 이는 상담심리 분야가 건강, 진로, 직업, 가족, 여성 등 다양한 영역으로 실무범위를 확장해오고 있기 때문이다(Hurst, 1999). 심리학에 기반한 학문 정체성을 가진 상담심리 분야뿐만 아니라, 독자적 정체성을 키워온 ‘상담(counseling)’ 분야 역시 중독, 재활, 진로, 학교상담 등으로 그 실무영역이 지속해서 확대됐으며(Waltz, 2021), 2022년 현재 미국상담학회 산하에는 특수한 관심 및 실무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 분과학회가 19개에 이른다(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22).

심리·상담 분야의 확장과 이로 인한 인접 분야와의 중첩과 같은 문제는 비단 미국에서만 나타난 사례가 아니다. 국내에서도 상담·심리 분야의 확장으로 인한 인접 분야와의 중첩 문제, 상담·심리의 독자적 정체성에 대한 쟁점 등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예: 김계현, 1994; 박애선, 황미구, 2008; 안수정 등, 2021).

그러나 미국에서는 심리·상담 관련 직역들이 분리되어 공존하는 방향으로 발전과 제도화가 이루어졌다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심리·상담 분야의 다양한 정체성들이 차별성을 중심으로 분리되지도, 공통성을 중심으로 통합되지도 못한 실정이다(신윤정, 이지연, 2021). 업무 현장에서는 언어 중심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가와 미술 또는 놀이를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가 사이의 접근법 차이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김재훈 등, 2020). 과연 무엇이 심리·상담 서비스인지에 대한 불분명함은 일반인의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온라인 플랫폼의 연관검색어에 기반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국내의 연구(이아라 등, 2021)에 따르면, ‘심리상담’ 검색어와 관련해서는 치료양식을 중심으로 한 주제가 도출되었고, 그 중에는 미술, 언어, 놀이 등이 빈번하게 함께 검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심리상담사’ 검색어와 관련해서는 ‘미술치료에 대한 관심’이라는 독립된 상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즉, 대중들은 심리·상담 혹은 그 전문가를 떠올릴 때, 언어를 매개로 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한 서비스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심리·상담 서비스 범위의 모호함은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제도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에서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해 정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심리상담사법안에는 “대면·비대면 대화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심리상담이 정의되어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그 범위로 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으나, 다른 법안들에서는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예: 유·무형의 지원과 원조를

제공하는 활동,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영역들 사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에서 나아가,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이 담당할 직무의 범위는 어떠한가, 어떠한 직무가 중요도가 높은 핵심직무인지를 설정하는 것 역시 제도화의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백옥선, 이상운, 2019). 우리나라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자격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기술·소양이 정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설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직무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으로 세부업무별 빈도, 중요도, 난이도, 우선도, 비중 등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예: 사회영 등, 2009). 빈도는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업무량의 개념으로 얼마나 빈번하게 해당 업무가 수행되었는지를 의미하며, 중요도란 업무의 실질적 파급효과를 의미한다. 난이도는 숙련도의 의미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능력 수준을 의미하며, 우선도는 다양한 업무들을 처리하는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비중은 비율의 차원으로, 전체 업무량에 비교하여 해당 업무가 차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직무 분석은 대체로 실제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영역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수행된다(사회영 등, 2009).

심리·상담 분야에서도 직무 분석을 수행한 몇몇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미국심

리학회의 상담심리분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직무 분석 연구(Fitzgerald & Osipow, 1986)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루 일과를 할애하는 비중은 상담업무(Median = 25%)가 가장 높았으며, 상담자 교육훈련(Median = 19%), 심리·상담 연구(Median = 7%)가 그 뒤를 이었다. 업무의 세부내용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상담영역의 경우 개인적응상담(personal adjustment counseling)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진다고 응답하였으며, 장기심리치료(long-term psychotherapy), 문제의 식별 및 진단(problem identification/diagnosis), 내담자에 대한 정보수집, 부부/가족 상담(couples/family counseling), 집단상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성격검사(personality inventories), 직업적성검사(vocational interest inventories), 지능검사 등을 사용한 심리평가는 상대적으로 그보다 적은 중요도를 보였다. 캐나다상담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른 연구(Gazzola & Smith, 2007)에서는 빈도를 기반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개인상담이 가장 빈번하게 수행하는 업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수 및 평가, 위기상담, 진로상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국내에서 수행된 심리·상담 분야에서의 직무 분석은 최윤미(2003)가 유일하다. 해당 연구에서는 상담전문가의 직무를 심리상담, 지역사회 상담교육 및 예방, 심리측정과 평가, 기업체 자문과 교육, 상담자 교육지도와 자문으로 상정하고 한국상담심리학회의 1급(상담심리전문가)과 2급(상담심리사) 자격자, 그리고 그 외의 심리상담 종사자들로 구분한 대상자들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직무와 직무중요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모든 집단에서 심리상담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성이 높은 직무인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자격자 집단은 상담자 교육지도와 자문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으며 중요한 업무라고 응답하였으며, 2급 자격자 집단은 지역사회 상담교육 및 예방, 심리측정과 평가, 기업체 자문과 교육 등 활동에 고루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그 중요성은 지역사회 상담교육 및 예방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에서 정하고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의 업무영역은 선행 연구에서 상정한 업무들과는 그 범위와 구체성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또한, 법안들 사이에서도 업무영역의 포괄성 및 구체성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 존재하였다(표 1 참조). 예를 들어, 심리검사나 평가 업무의 경우 심리상담사법안과 심리사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마음건강증진법안과 상담사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심리재활 업무는 심리사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다른 세 법안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이렇게 법안 간 다르게 설정된 업무 범위 중 실제로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자들이 어떤 업무를 우선적으로, 자주, 많이, 중요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다. 또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수요자들은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업무 중 어떠한 업무를 서비스로 제공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되지 않았다. 자격의 제도화에 앞서 직무 범위 설정을 위해 직무 내용을 분석한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중들이 해당 자격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 즉 세부 업무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표 1. 각 발의안에 따른 심리·상담 제공인력의 업무 범위

업무범위	
심리상담사법안 (최종윤 의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li> <li>2.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서비스 제공</li> <li>3. 심리자문</li> <li>4. 그 밖에 심리상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마음건강증진법안 (전봉민 의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리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서비스 제공</li> <li>2. 마음의 건강에 관한 지식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교육, 정보제공, 홍보 등 업무</li> </ol>
심리사법안 (서정숙 의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li> <li>2.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재활</li> <li>3. 심리교육</li> <li>4. 심리자문</li> <li>5. 심리 연구 및 개발</li> <li>6. 심리서비스제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li> <li>7. 그 밖에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심리서비스</li> </ol>
상담사법안 (심상정 의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서비스 제공</li> <li>2. 상담자문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li> <li>3. 그 밖에 상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사회적 수요와 필요성은 자격제도 자체의 필요성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와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 서비스 제공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서비스와 자격의 명칭,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의 영역,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자의 담당 업무에 대해서 제공자 집단과 수요자 집단의 인식 및 그 차이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대표할 명칭(심리서비스 vs. 심리상담서비스)과 국가자격 명칭(심리사 vs. 상담사 vs. 상담심리사 vs. 심리상담사)에 대한 상담심리사와 일반인 집단의 상대적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이와 더불어, 상담심리사와 일반인 집단이 다양한 영역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 범위에 어느 정도 속한다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심리·상담 전문적 인력이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업무들(심리검사/평가, 심리상담/치료, 심리재활, 심리자문, 심리교육 등)에 있어 전체 업무 중 각각의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직무에 대한 분석은 빈도, 중요도, 난이도, 우선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제 업무담당자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러한 영역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요자인 일반인의 인식을 함께 살펴보고 비교하는 것이기에 직무에 대한 인식 평가는 비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자 집단 중 하나인 상담심리사 집단과 그 수요자인 일반인 집단 간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그 양상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방법

### 연구참여자

심리·상담 서비스의 명칭, 제공인력 명칭, 서비스 영역 및 범위에 대해 2022년 6월 2일부터 일주일간 (사)한국상담심리학회 회원들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후 대학생이 아닌 성인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응답을 수집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엠브레인, panel.co.kr)에 설문조사 실시를 의뢰하였다. 이를 통해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성인들을 성별과 연령은 균등하게, 그리고 거주지는 실제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비례하여 표집을 실시하고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의 자발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에 대한 안내서(informed consent)가 먼저 제시되었으며,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만 본 설문이 배포되었다. 최종적으로 총 882명의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 상담심리사와 798명의 일반인(대학생 335명, 일반 성인 464명, 집단별 표본오차  $\pm 5\%$  미만)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이들의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상담심리사 집단은 여성이 다수(82.5%)를 차지하였고, 일반인 집단은 절반 정도의 여성 비율을 보였다( $n=429$ , 53.7%). 연령의 경우 상담심리사는 30대(32.0%)와 40대(29.6%)가 가장 많았고, 일반인 집단은 20대(50.1%)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의 학력은 상담심리사 집단의 경우 대다수가 대학원 졸업 이상(84.5%)이었으며, 일반인 집단의 경우 고졸 및 대학 재학이 절반 이상(52.9%)을 차지하였다. 상담심리사 집단의 회원 형태는 2급 자격 소지자(32.1%)가 가장 많았으며, 준회원(석사학위 미만/자격 미소지, 25.7%), 1급 자격 소지자(22.2%), 정회원

표 2. 설문 참여자의 특성

(명, %)

		상담심리사(n=882)	일반인(n=799)
성별	남	154(17.5)	369(46.2)
	여	728(82.5)	429(53.7)
연령	만 29세 미만	110(12.5)	400(50.1)
	만 30~39세	282(32.0)	88(11.0)
	만 40~49세	262(29.7)	103(12.9)
	만 50~59세	180(20.4)	112(14.0)
	만 60세 이상	47(5.3)	94(11.8)
학력	고졸 미만	-	9(1.1)
	고졸	-	423(52.9)*
	대졸	137(15.5)**	305(38.2)
	대학원 졸	745(84.5)***	62(13.4)
회원 형태	1급 자격 소지	196(22.2)	-
	2급 자격 소지	283(32.1)	-
	정회원(석사학위 이상, 자격 미소지)	176(20.0)	-
	준회원(석사과정 재학, 자격 미소지)	227(25.7)	-

주. \* 대학생 335명 포함

\*\* 석사과정 재학 134명 포함

\*\*\* 석사졸업 = 453명, 박사과정 = 170명, 박사졸업 = 122명

(석사학위 이상/자격 미소지, 20.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문항의 결측률은 1% 미만이었다.

### 설문문항 구성

설문 문항의 구성을 위하여 본 연구진은 서론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더불어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실시했던 심리·상담 분야 법제화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1,124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토의를 실시하였다. 심리·상담 분야의 직업적 특성을 살펴본 기존연구의 변

인들을 살펴보고 설문 응답 자료의 유목화를 통해 교집합을 도출하여 이를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출된 내용은 표 3과 같으며, 이러한 내용을 심리서비스 국가자격 명칭, 전문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명칭, 심리서비스 범위 및 영역, 심리서비스 제공인력의 최소 학력 수준과 수련 기간, 심리서비스 직무별 비중으로 나누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심리서비스의 범위 및 영역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서는 언어를 매개로 하는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치료(예: 미술치료, 독서치료, 음악치료 등)에



표 3. 설문 문항 구성

문항	내용
서비스 명칭	상담심리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을 심리서비스, 상담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기타의 보기를 주어 선택하게 함
국가자격 명칭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담당할 전문인력에 적절한 국가자격 명칭을 심리사, 상담사, 상담심리사, 심리상담사, 기타의 보기를 주어 선택하게 함
서비스 범위 및 영역	다양한 심리상담 유관 서비스(종교계상담, 웃음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독서치료, 글쓰기치료, 부부 및 가족상담)이 전문적인 심리서비스에 속하는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게 함
직무 비중	전문적 심리서비스를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넓게 정의한 심리사법안의 업무 영역(심리검사/평가, 심리상담/치료, 심리재활, 심리자문, 심리교육, 심리연구및개발, 기타)을 기반으로 각 영역이 상담심리사의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합계 100%)을 평정하게 함

대한 인식조사가 필요하다는 최혜윤과 김은하 (2021b)의 제언과 다양한 비약물적 개입전략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의 효과를 통합적으로 연구한 국외의 선행연구(예: Sabeena & Kumar, 2022)의 분류를 참고하여 일차적으로 영역을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일차적으로 선정한 영역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심리사회적 증상과 관련된 임상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영역을 최종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언어적 심리개입 영역으로는 종교계 상담(예: Hook et al., 2010; Worthington, 1986)과 부부 및 가족상담(예: Cosso et al., 2022)을, 비언어적 매체를 활용한 심리개입의 영역으로는 놀이치료(예: Lin & Bratton, 2015; Ray et al., 2015), 미술치료(예: Schouten et al., 2015), 음악치료(예: de Witte et al., 2022), 독서치료와 글쓰기치료(예: Floyd, 2003)을 선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언어적/비언어적 전략이 모두 사용되는 개입전략인 웃음치료(laughter-inducing therapy: van der Wal & Kok, 2019; Zhao et al., 2019) 또한 유관 심리서비스 영역으로 선정

하였다.

#### 분석방법

SPSS 26.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3개의 서비스 명칭(심리서비스, 상담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4개의 직업 명칭(심리사, 상담사, 상담심리사, 심리상담사)에 대한 상담심리사와 일반인 집단의 선호도 응답 빈도를 산출하고 교차분석을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총 8개의 심리·상담 유관 서비스 영역이 전문적 심리서비스에 속하는 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응답을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심리사법안에서 제시한 전문적 심리서비스의 업무(심리검사/평가, 심리상담/치료, 심리재활, 심리자문, 심리교육, 심리연구및개발, 기타) 영역들이 상담심리사의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상담심리사와 일반인들의 응답을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비교하였다.

### 결 과

3개의 서비스 명칭(심리서비스, 상담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4개의 직업 명칭(심리사, 상담사, 상담심리사, 심리상담사)에 대한 상담심리사와 일반인의 선호도 응답 결과와 교차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서비스 명칭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두 집단 간에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3)=41.36, p<.05$ ). 양 집단 모두에서 가장 높은 선호를 가진 서비스의 명칭은 심리상담서비스(상담심리사 85.9%, 77.2%)였다. 상담심리사 집단에서는 심리서비스라는 명칭에 대한 선호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7.3%), 상담서비스는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명칭이었다(5.2%). 반면에 일반인 집단에서는 심리서비스(9.3%)라는 명칭에 비해 상담서비스가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13.1%).

국가자격 명칭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집단 간 응답 비율의 질적 차이가 나타났다( $\chi^2(4)=$

137.22,  $p<.05$ ). 심리상담사라는 자격 명칭이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나(상담심리사 44.6%, 일반인 71.6%), 두 번째로 선호도가 높았던 상담심리사라는 명칭에 대해서 상담심리사 집단은 41.7%, 일반인 집단은 18.9%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상담심리사 집단에서는 심리상담사라는 명칭과 상담심리사라는 명칭 간의 선호도 차이가 크지 않았던 반면(2.9%p), 일반인 집단에서는 비교적 큰 차이(52.7%p)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집단 모두에서 심리사 명칭에 대한 선호가 그 뒤를 이었으며(상담심리사 10.4%, 일반인 6.9%),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명칭은 상담사였다(상담심리사 1.5%, 일반인 5.7%). 일반인 집단의 경우, 서비스의 명칭으로는 상담서비스를 심리서비스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가 자격의 명칭으로는 상담사보다는 심리사 명칭을 선호하였다.

상담심리사 집단과 일반인 집단에서 나타난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표 4. 서비스 명칭과 자격 명칭에 대한 선호 빈도 (%)

질문	명칭	전체(n=1,681)	집단별		$\chi^2(df)$
			상담심리사(n=882)	일반인(n=799)	
서비스 명칭	심리서비스	138(8.2)	64(7.3)	74(9.3)	41.36(3)*
	상담서비스	151(9.0)	46(5.2)	105(13.1)	
	심리상담서비스	1,375(81.8)	758(85.9)	617(77.2)	
	기타	17(1.0)	14(1.6)	3(0.4)	
자격 명칭	심리사	147(8.7)	92(10.4)	55(6.9)	137.22(4)*
	상담사	30(1.8)	13(1.5)	17(5.7)	
	상담심리사	519(30.9)	368(41.7)	151(18.9)	
	심리상담사	965(57.4)	393(44.6)	572(71.6)	
	기타	20(1.2)	16(1.8)	4(0.5)	

주. \*  $p<.05$

일반인 집단의 응답 내용이 심리서비스 관련 경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추가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심리검사 및 평가 경험,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경험, 심리학 강의 참여 경험의 여부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나타나지 살펴보았다(표 5). 서비스 명칭의 선호도에서는 각 경험 여부가 응답 유형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자격 명칭의 선호도 응답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심리검사 및 평가와 심리상담 및 치료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심리상담사’라는 명칭에 대한 선호는 다소 낮았으나, ‘상담심리사’라는 명칭에 대한 선호가 높은 양상을 보였다( $p < .05$ ).

다음으로, 참여자들이 여러 심리·상담 유관 서비스 영역에 대해 전문적인 심리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인지를 5점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적 심리서비스에 포함되는

정도가 크다고 인식)로 평정한 자료를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표 6). 먼저 집단별 응답을 살펴보면, 상담심리사 집단은 부부 및 가족상담 분야가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에 포함되는 정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하였으며(4.36점), 이어서 놀이치료와 미술치료에 대해 3점(일부분 포함된다)을 상회하는 평가를 하였다. 종교계 상담, 음악치료, 독서치료, 글쓰기 치료 분야에 대해서는 2~3점의 평가를 하였다. 웃음치료를 대해서는 1.52점의 평가를 하여 전문적 심리서비스에 포함되는 정도를 가장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집단 역시 부부 및 가족상담 분야에 대해서 가장 높은 평가를 하였다(4.12점). 뒤이어 미술치료, 놀이치료, 놀이치료 분야가 높은 점수(3.67~3.68점)를 보였으며, 웃음치료는 3.30점의 평가를 하였다. 종교계 상담의 경우 2.25점으로 심리서비스로서의 전문성이 가장

표 5. 경험에 따른 일반인의 서비스 명칭과 자격 명칭에 대한 선호 빈도 (%)

질문	명칭	심리검사 및 평가 경험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경험		심리학 강의 참여 경험	
		있음( $n=352$ )	없음( $n=447$ )	있음( $n=217$ )	없음( $n=582$ )	있음( $n=361$ )	없음( $n=437$ )
서비스 명칭	심리서비스	34(9.7)	40(8.9)	21(9.7)	53(9.1)	29(8.0)	45(10.3)
	상담서비스	53(15.1)	52(11.6)	34(15.7)	71(12.2)	44(12.2)	61(14.0)
	심리상담서비스	263(74.7)	354(79.2)	161(74.2)	456(78.4)	287(79.5)	329(75.3)
	기타	2(0.6)	1(0.2)	1(0.5)	2(0.3)	1(0.3)	2(0.5)
	$\chi^2(df)$	3.00(3)		1.92(3)		2.19(3)	
자격 명칭	심리사	26(7.4)	29(6.5)	13(6.0)	42(7.2)	24(6.6)	31(7.1)
	상담사	7(2.0)	10(2.2)	6(2.8)	11(1.9)	7(1.9)	10(2.3)
	상담심리사	88(25.0)	64(14.1)	56(25.8)	95(16.3)	82(22.7)	68(15.6)
	심리상담사	229(65.1)	343(76.7)	141(65.0)	431(74.1)	246(68.1)	326(74.6)
	기타	2(0.6)	2(0.4)	1(0.5)	3(0.5)	2(0.6)	2(0.5)
$\chi^2(df)$	16.49(4)*		10.27(4)*		6.74(4)		

주. \* $p < .05$

표 6. 심리 관련 서비스 중 전문적 심리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정도에 대한 인식

서비스 분야	전체( <i>n</i> =1,680)	집단별		<i>t</i>
		상담심리사( <i>n</i> =882)	일반인( <i>n</i> =798)	
종교계 상담	2.33(1.05)	2.30(1.07)	2.37(1.02)	1.35
웃음치료	2.36(1.25)	1.52(0.76)	3.30(0.99)	41.10*
놀이치료	3.44(1.02)	3.23(1.10)	3.67(0.88)	8.97*
미술치료	3.36(1.03)	3.07(1.06)	3.68(0.89)	12.74*
음악치료	3.13(1.12)	2.63(1.06)	3.68(0.90)	22.12*
독서치료	2.85(1.10)	2.37(1.00)	3.38(0.94)	21.14*
글쓰기치료	2.89(1.11)	2.39(1.00)	3.45(0.95)	22.39*
부부 및 가족상담	4.25(0.83)	4.36(0.78)	4.12(0.86)	-5.89*

주. \**p*<.05, 5점 척도 응답(1=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5=완전히 포함된다)의 평균(표준편차) 제시.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상담심리사 집단은 일반인 집단에 비해 부부 및 가족상담이 전문적 심리서비스에 포함되는 정도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t*=-5.89, *p*<.05),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는 일반인 집단에 비해 전문적 서비스에 포함되는 정도가 더

작다고 인식하고 있었다(*p*s<.05). 종교계 상담에 대해서는 양 집단 사이의 응답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어서 심리검사 및 평가,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심리학 강의 참여 경험 여부에 따라 일반인 집단의 응답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표 7). 일반인 중 심리검사 및 평가

표 7. 경험에 따른 일반인의 심리 관련 서비스 중 전문적 심리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정도에 대한 인식

서비스 분야	심리검사 및 평가 경험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경험		심리학 강의 참여 경험	
	있음( <i>n</i> =352)	없음( <i>n</i> =446)	있음( <i>n</i> =217)	없음( <i>n</i> =581)	있음( <i>n</i> =361)	없음( <i>n</i> =436)
종교계 상담	2.34(1.04)	2.40(1.01)	2.26(1.08)	2.41(1.00)	2.36(1.00)	2.38(1.00)
웃음치료	3.28(1.04)	3.31(0.95)	3.16(1.06)	3.35(0.96)*	3.21(1.03)	3.36(0.95)*
놀이치료	3.84(0.86)	3.52(0.87)*	3.79(0.88)	3.62(0.87)*	3.78(0.89)	3.56(0.85)*
미술치료	3.84(0.89)	3.55(0.87)*	3.78(0.94)	3.64(0.87)	3.75(0.90)	3.62(0.87)*
음악치료	3.77(0.90)	3.62(0.90)*	3.74(0.96)	3.66(0.88)	3.72(0.94)	3.65(0.87)
독서치료	3.47(0.98)	3.30(0.91)*	3.40(1.01)	3.37(0.91)	3.44(0.97)	3.32(0.91)
글쓰기치료	3.57(0.97)	3.35(0.92)*	3.51(1.00)	3.42(0.93)	3.54(1.00)	3.37(0.90)*
부부 및 가족상담	4.35(0.75)	3.94(0.89)*	4.35(0.83)	4.04(0.86)*	4.37(0.77)	3.92(0.88)*

주. \**p*<.05, 5점 척도 응답의 평균(표준편차) 제시.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종교계 상담과 웃음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에 대해 전문적 심리서비스에 포함되는 정도가 더 크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p < .05$ ). 한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경험이 있는 일반인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웃음치료의 전문성에 대해 더 낮게 평가하였고, 놀이치료, 미술치료, 부부 및 가족상담에 대해서는 더 높게 평가하였다. 심리학 강의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일반인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웃음치료의 전문성은 낮게,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글쓰기치료, 부부 및 가족상담의 전문성은 높게 평가하였다.

표 8에는 심리사법안에서 제안된 전문적 심리서비스의 직무영역 중 상담심리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비중에 대한 상담심리사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응답과 독립표본  $t$  검정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집단별 응답을 먼저 살펴보면, 상담심리사 집단의 경우 심리상담/심리치료 영역이 상담심리사의 직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45.34%).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은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17.69%)였으며 뒤이어 심리교육(11.61%), 심리자문(9.00%), 심리연구 및 개발(8.40%), 심리재활(7.24%)의 순서를 보였다. 일반인 집단에서도 심리상담/심리치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28.90%). 또한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영역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인식되고 있었다(21.74%). 한편 상담심리사 집단에서는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된 심리재활 직위가 일반인 집단에서는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영역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무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4.36%). 다음으로는 심리교육(11.47%), 심리연구 및 개발(10.82%), 심리자문(10.15%)의 순으로 응답 비중이 뒤를 이었다.

각 직무영역에 대한 집단별 응답 차이를 살펴보면,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직무에 대해서 일반인 집단이 상담심리사 집단보다 더 높은 직무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 $t = 7.88, p < .05$ ). 한편 심리상담/심리치료 직무에 대해서는 상담심리사 집단이 일반인 집단보다 비중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t = -24.15,$

표 8. 전문적 심리서비스 직무영역 중 상담심리사의 직무 비중에 대한 인식

직무영역	전체( $n=1,680$ )	집단별		$t$
		상담심리사( $n=882$ )	일반인( $n=798$ )	
심리검사/심리평가	19.61(10.54)	17.69(8.50)	21.74(12.07)	7.88*
심리상담/심리치료	37.53(16.20)	45.34(14.30)	28.90(13.60)	-24.15*
심리재활	10.62(8.13)	7.24(6.86)	14.36(7.80)	19.77*
심리교육	11.54(6.01)	11.61(5.71)	11.47(6.32)	-0.47
심리자문	9.55(5.85)	9.00(5.51)	10.15(6.16)	4.02*
심리연구 및 개발	9.55(6.52)	8.40(5.76)	10.82(7.06)	7.63*
기타심리서비스	1.61(6.16)	0.71(3.51)	2.60(8.03)	6.13*

주. \* $p < .05$ , 백분율 응답의 평균(표준편차) 제시.

표 9. 경험에 따른 일반인의 전문적 심리서비스 직무영역 중 상담심리사의 직무 비중에 대한 인식

직무영역	심리검사 및 평가 경험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경험		심리학 강의 참여 경험	
	있음( <i>n</i> =351)	없음( <i>n</i> =447)*	있음( <i>n</i> =217)	없음( <i>n</i> =581)	있음( <i>n</i> =360)	없음( <i>n</i> =437)
심리검사/심리평가	20.58(11.49)	22.64(12.44)*	19.91(11.21)	22.42(12.31)*	20.19(10.89)	23.02(12.84)*
심리상담/심리치료	30.13(13.34)	27.93(13.73)*	31.27(15.35)	28.01(12.78)*	30.38(13.92)	27.70(13.22)*
심리재활	14.70(7.84)	14.08(7.75)	14.55(7.91)	14.28(7.76)	15.12(7.77)	13.72(7.77)*
심리교육	11.79(6.20)	11.22(6.41)	11.44(6.06)	11.48(6.43)	11.40(6.16)	11.51(6.45)
심리자문	10.33(6.79)	10.00(5.62)	9.80(5.80)	10.28(6.29)	10.25(6.63)	10.05(5.75)
심리연구 및 개발	10.95(7.01)	10.71(7.10)	10.98(7.29)	10.75(6.98)	10.96(7.27)	10.69(6.90)
기타심리서비스	1.54(5.61)	3.44(9.42)*	2.10(6.83)	2.79(8.43)	1.73(5.95)	3.32(9.35)*

주. \**p*<.05, 백분율 응답의 평균(표준편차) 제시.

*p*<.05). 심리재활, 심리자문, 심리연구 및 개발 직무에 대해서는 상담심리사 집단이 일반인 집단보다 그 비중을 작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s<.05), 심리교육 직무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심리서비스 관련 경험 여부에 따른 일반인 집단의 상담심리사 직무 비중에 대한 응답 차이를 살펴보면(표 9), 각 경험이 있는 일반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직무의 비중은 더 작게 평가한 반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의 비중은 더 높게 평가하는 양상을 보였다(*p*s<.05). 심리재활 영역에 대해서는 심리학 강의 참여 경험이 있는 일반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높은 비중을 응답하였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집단 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는 2022년 국회에 발의된 심리·상담 관련 법안들 사이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주

제들에 대해 상담심리사와 일반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알아보고 그 차이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보사연에서 진행 중인 심리서비스 제도화 연구에서 소속 학회에 요청한 질의에 응답하기 위하여 먼저 수행되었던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 상담심리사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일반인의 인식과 비교함으로써 구체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도화될 경우 서비스와 그 자격의 명칭,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의 일환으로 포함될 수 있는 분야의 범위, 업무영역에 대해 두 집단이 가진 인식을 조사 및 비교하였으며, 일반인 집단의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 관련 경험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추가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기반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명칭에 대한 선호도에서 상담심리사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심리서비스’, ‘상담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중 ‘심리상담서비스’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담심리사 집단은 ‘심리서비스’

명칭을 두 번째로 선호하였고, 일반인 집단의 경우 ‘상담서비스’를 두 번째로 선호하였다. 자격 명칭의 선호도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였다. 상담심리사 집단의 경우 ‘심리상담사’ 명칭이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상담심리사’ 명칭의 선호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일반인 집단에서는 ‘심리상담사’ 명칭이 다른 명칭들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며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일반인 집단의 서비스 명칭에 대한 선호도 응답 양상은 심리·상담 서비스 관련 경험의 여부에 따라 큰 질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격 명칭의 선호도는 심리검사 및 평가나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경험이 있을수록 ‘심리상담사’ 명칭에 대한 선호도는 줄어든 반면, ‘상담심리사’ 명칭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반인 집단에서 ‘심리상담서비스’, ‘심리상담사’라는 명칭이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인 결과는 ‘심리상담사’라는 직업명이 ‘심리사’라는 직업명보다 인지도나 접근성의 측면에서 대중들로부터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한 성현모 등(2022)의 연구나, 인터넷상에서 ‘심리서비스’, ‘심리사’ 용어보다 ‘심리상담’ 용어가 더욱 포괄적인 맥락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한 박철형 등(2022)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한다. 직업 혹은 자격의 명칭은 그 자체로 그 직업과 결부된 지식, 기술, 책임을 내포한 상징이 되며(Martinez et al., 2008), 그 대상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국가자격을 통해 심리상담 분야가 제도화될 때, 일반인들에게 친숙하고 이들로로부터 선호되는 명칭을 활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명칭을 사용했을 때보다 그 자격자가 가질 능력과 지식, 기술을 더 쉽게 나타낼 수 있기에 홍보를 위

한 부수적인 행정력이나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으면서도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높일 방안이 될 것이다(성현모 등, 2022).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들이 당면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하며(Foxhall, 2000), 나아가 심리상담이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여야 한다(Vogel & Wester, 2003; Lee & Shin, 2020). 선호도가 높은 친숙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두 과제 중 첫 번째, 즉 심리적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심리·상담 서비스 및 그 제공자를 빠르게 떠오르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에게 선호되고 익숙한 명칭을 선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철형 등, 2022; 최정아, 2021).

한편, 심리·상담 서비스의 전문가이자 제공자 집단의 한 축인 상담심리사 집단에서도 ‘심리상담서비스’라는 명칭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이는 이들이 수행하는 여러 업무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심리상담’이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격 명칭으로서의 ‘심리상담사’ 역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민간자격 명칭인 ‘상담심리사’보다 근소하게나마 선호도가 높았던 결과 역시 ‘심리상담’이라는 직업적 행위를 내포한 명칭이기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어권에서의 ‘psychology’라는 단어는 마음과 의식의 상태를 의미함과 동시에 이를 다루는 학문 및 관련 행위들과 결부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psychologist’라는 단어는 마음과 의식의 상태를 학문으로써 전문적으로 다루는 자, 또는 마음과 의식의 장애(disorder)를 전문적으

로 치료하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된다(Merriam-Webster, n.d.).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심리(心理)’라는 용어는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니시 아마네가 최초로 조셉 헤이븐의 서적 『*Mental Philosophy*』를 ‘心理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여 소개한 이래로(이대승, 2020), 그 의미의 범위가 마음과 의식의 상태 및 이를 다루는 학문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다(국립국어원, n.d.). ‘psychology’의 전문가인 ‘psychologist’ 역시 주로 ‘심리학자’로 번역되고 활용되어 왔기에(예: 권정혜, 2007; 김민지, 2013), ‘심리’라는 단어만으로는 아직까지 학문 영역을 벗어나 다른 구체적 행위와 결부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상담(相談)’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는 행위라는 의미로(국립국어원, n.d.)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기에, 수행하는 업무의 양상을 직접 드러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심리·상담 실무자들은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명료하게 체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 기관이나 맥락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안수정 등, 2021; 최윤경, 2004).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과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표하는 명칭을 정해야 한다면 자신들의 중심적인 직업 행위, 즉 마음의 상태(심리)에 대한 상호 간의 대화(상담)라는 행위를 상징하는 명칭을 통해 자신들의 직업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와 결부된 역량과 능력을 보여주고자 할 수 있다(Lowenthal & Wilson, 2010; Zyromski et al., 2019). 직업의 명칭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을 때에는 그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일례로 우리나라의 임상병리사 직업의 경우 명칭과 행위의 간극으로 인해 직업 정체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

다. ‘병리(病理)’라는 단어 역시 행위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가 아니라 ‘병의 원인과 발생에 대한 이론’이라는 의미(국립국어원, n.d.)만을 담고 있기에 이를 활용한 직업명이 정체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위를 내포할 수 있는 “진단검사분석사”, “의생명분석사” 등의 명칭이 새로이 제안되기도 하였다(구본경 등, 2021). 하지만, 본 연구에서 상담심리사 집단이 ‘심리상담서비스’와 ‘심리상담사’ 명칭을 가장 선호한 이유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원인 분석까지는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호도가 실제로 직업 정체성과 결부된 것인지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여러 심리·상담 유관 서비스 영역들의 전문적 심리서비스 포함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부부 및 가족상담은 상담심리사와 일반인 집단 모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담심리사 집단에서는 놀이치료와 미술치료 영역에 대해서 3점 이상(3점=전문적 심리·상담서비스에 “일부분 포함된다”)의 평가를 하였으며, 그 이외의 영역에는 포함되는 정도가 낮게 평가하였다. 웃음치료의 경우 2점(약간 포함된다) 미만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인 집단은 종교계 상담에 대해서만 3점 미만의 평가를 하였고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3점 이상의 평가를 하여 상담심리사 집단의 평가와 차이를 보여주었다. 상담심리사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에서 부부 및 가족상담이 전문적 심리서비스에 포함되는 정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한 것은 전통적으로 가족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다양한 아동 및 가족 관련 기관(예: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활발하게 가족상담 서비스를 확대·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어 온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신혜중, 2015). 이에 비해 종교계 상담의 경우 양 집단에서 모두 비교적 전문적 심리서비스와의 일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한국 상담전문가들 중 종교인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으며(이문기, 2017) 종교계 교육기관에서 심리 및 상담학과 개설이 늘고 있는 현재 상황과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종교계 상담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 대중 모두 심리 및 상담의 전문적 훈련을 받은 종교인이 제공하는 상담(예: 전문적 목회상담, 불교상담 등)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종교활동의 맥락 내에서 체계적인 심리·상담 이론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일종의 교리적 대화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김영수(2021)는 현재 목회상담이 처한 상황에 대해 ‘딜레마’라고 표현하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가들이 하는 목회상담은 일반상담과 거의 차이가 없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목회자들이 하는 상담은 학문적으로 체계적이지 않을뿐더러 이론이나 기술도 미비한 상태”(p.13)라고 지적하였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종교계 상담’이라는 표현을 통해 후자의 비전문적 상담을 떠올렸을 수 있다.

한편, 상담심리사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응답 패턴을 살펴보면, 상담심리사 집단의 경우 각 서비스 영역 간 평가의 차이가 일반인 집단보다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담심리사 집단이 여러 유관 서비스들을 일반인 집단보다 더 자주 직·간접적으로 경험(교육, 협업 등)해 보았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해 유관 서비스들의 전문성에 대한 변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상담심리사 집단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문항의 응답 결과는, 상담심리사 집단이 일반인 집단에 비해 여러 유관 심리서비스 영역을 구분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이에 반해 일반인 집단에서는 부부 및 가족상담과 종교계 상담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매체를 활용한 치료영역)에 대한 평가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이들 영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이아라 등, 2021). 다양한 관련 서비스들에 대해 일반인의 관점에서 구분이 어렵다면 이는 서비스의 이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직종이 제도화되어 있는 미국(예: psychologist, professional counselor,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s, psychoanalyst, creative art therapist 등)에서는 일반인들이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직종들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Farberman, 1997; Lilienfeld, 2012), 각각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Richardson, 2001). 미국의 심리·상담 분야 전문직이 분화 및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정체성은 점차 명확하게 분리되어왔을지라도 일반 대중들에게는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다. 상담심리사 집단이 각 영역에 대해서 보다 변별적인 평가를 하였지만, 일반인 집단은 그렇지 못한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전문가 집단과 일반 대중 사이의 인식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리 및 상담 전문인력들조차 자신의 차별적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점(조민경, 장유진, 2020), 그리고 현재 발의된 법안 중 심리상담을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로 정의한 법안과 포괄적인 정의(예: 유·무형의 원조 지원)를 한 법안이 모두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제도화의 논의과정에서 매체 활용 치료사 등 다양한 유관 직업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이들의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심리·상담 분야의 법제화 및 제도화의 목적인 만큼, 다양한 심리·상담 관련 서비스들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일반 대중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심리서비스 관련 경험에 따른 전문적 서비스 포함 범위에 대한 응답에서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심리검사 및 평가 경험이 있는 경우 종교계 상담과 웃음치료를 제외한 다른 영역들(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독서치료, 글쓰기치료, 부부 및 가족상담)이 전문적 심리서비스에 포함되는 정도가 더욱 크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 웃음치료를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놀이치료와 부부 및 가족상담에 대해서는 포함되는 정도를 더욱 크게 평가하였다. 심리학 강의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웃음치료를 대한 평가는 낮아졌지만, 놀이치료, 미술치료, 글쓰기치료, 부부 및 가족상담 등 영역에 대한 평가는 높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중들의 유관 영역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심리·상담 관련 경험으로 인해 더욱 정확해졌다고 선불리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상담심리사와 일반인 집단 간의 전문성 평가 차이와 관련하여 논했던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유관 영역의 전문성에 대한 질문은 정확한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식조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웃음치료 영역에서 심리서비스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웃음치료가 심리서비스보다는 병원이나 간호현장에서 수행되는 대체 간호서비스로 여겨지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평가하게 되어서인지, 혹은 비교적 적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법(최정화 등, 2017)이라고 평가하게 되어서인지, 혹은 심리사회적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작을 것이라고 평가하게 되어서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는 간접적인 형태라라도 심리·상담 서비스와 관련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심리·상담 및 유관 영역 서비스에 대한 인식에 모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정도로 제한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심리 및 상담 분야의 전문가들은 대중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약물 처방과 상담의 차이를 잘 모르거나, 심리검사 결과를 시각화 및 언어화하여 제공해주는 것이 곧 상담이라고 여기는 등 현재 일반 대중들에게는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안수정 등, 2021). 법제화와 국가자격화를 위한 대중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제공자들의 전문성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화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사례만이 부각되고 대중에게 전달된다면 자칫 심리·상담 분야의 직업 이기주의로 비

추어질 수 있으며, 심리상담 서비스와 전문가의 가치가 절하될 수도 있다(이만우, 2021). 이에 반해, 오현수와 김진숙(2012)은 방송이나 도서,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한 간접경험을 통해서도 상담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긍정적인 인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심리 및 상담 분야의 전문가들은 대중접근적(reach-out)인 서비스의 확대와 홍보를 통해 자신들의 전문성과 역할을 알리고 대중들이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서영석, 안하얀, 2022; Kaplan & Gladding, 2011).

셋째, 심리·상담 전문직의 담당 직무 비중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담심리사 집단은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직무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45.34%)을 차지한다고 응답하였고,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직무는 다음 순위로 높은 비중(17.69%)이라고 응답하였다. 심리교육, 심리자문, 심리연구 및 개발, 심리재활 직무는 약 10%내외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일반인 집단은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직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응답하기는 하였으나(28.90%),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응답한 심리검사 및 평가 직무(21.74%)와의 차이가 상담심리사 집단만큼 크지는 않았다. 심리재활, 심리교육, 심리자문 직무에 대해서는 일반인 집단도 10% 내외의 적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과거 미국심리학회 상담심리분과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하루의 업무시간 중 25%(중위값)를 할애한다고 응답하였는데(Fitzgerald & Osipow, 1986),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일반인들의 인식이 이와 유사한 수치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상

담심리사 집단은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의 비중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심리사 집단이 심리상담 업무에 대한 비중을 다른 업무에 비해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는 점은 앞서 서비스와 국가자격의 명칭과 관련된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의 정체성 중심에 ‘심리상담’이라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인 집단이 평가한 직무 비중의 경우, 심리상담 전문직에 대한 일종의 예측과 기대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에, 상담심리사 집단이 평가한 직무 비중은 이들의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들의 핵심 업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최윤경(2004)의 연구에서도 상담자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는 내담자를 직접 만나는 대면상담 업무(중·장기 성인상담, 단기문제해결상담, 진로 및 학업상담 등)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심리교육이나 자문 등 역할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상담자 교육 및 훈련과 같은 직무의 비중이 높았던 미국의 상담심리학자 대상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는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자격제도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미국의 상담심리학자(counseling psychologist) 자격은 박사급 인력으로 상담수련생의 교육훈련과 자문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직무이지만(Society of Counseling Psychology, n.d.),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제도에서는 수련생의 교육훈련과 자문 역할이 1급(상담심리전문가)의 직무에 한정되기 때문이다(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자격규정 참조).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심리사 집단은 다수가 2급 자격자 및 수련생(77.8%)이기

때문에 교육 및 자문, 또는 심리연구 직무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을 수 있다.

일반인 집단의 경우, 심리상담 및 치료와 심리검사 및 평가 두 업무의 비중 차이가 근소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들이 심리·상담 전문직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를 유추해볼 수 있다. 즉, 이들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기대하는 정도와 유사하게 심리검사 및 평가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평가한 심리상담과 심리검사 및 평가 업무 사이의 비중 차이가 상담심리사 집단만큼 크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각종 미디어 매체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서 심리검사에 대한 노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그 원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MBTI를 필두로 한 각종 성격유형 검사는 젊은 세대에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교수신문, 2022.11.22.), 영유아 종합 발달/심리검사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전면에 내세운 예능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심리·상담 전문직이 심리상담 업무만큼이나 중요하게 심리검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매체를 통한 간접경험이 아니라, 직접적인 심리·상담 관련 경험(심리검사, 심리상담, 심리학 강의 등)이 있는 일반인 집단의 경우 심리검사 업무의 비중은 작게, 심리상담 업무의 비중은 크게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이 이러한 설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상담심리사 집단은 심리검사 및 평가가 중요하게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이지만, 상담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수 있기에 업무 비중에 대한 평가

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상담심리사 집단과 일반인 집단에서 심리상담과 심리검사 및 평가 업무의 비중에 대한 응답에서 차이가 나타났기는 하지만, 두 집단 모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심리검사 및 평가가 심리·상담 전문직이 수행하는 업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점은 심리·상담 전문직의 제도화 과정에서 어떠한 직무가 핵심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직무는 부수적인 영역인지 판단하는 데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상담자의 직무를 연구한 최윤미(2003)는 상담실무(상담 및 치료)와 심리측정 및 평가 외에도 상담교육 및 예방, 기업체 자문, 상담자 교육·훈련 등을 주요 직무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최윤경(2004) 역시 상담자들이 상담 실무와 심리검사 활용 이외에도 연구와 행정, 교육·훈련 등을 전문업무로써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심리상담 분야의 직무영역과 능력을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심리상담 기획·행정, 심리상담 홍보 등의 직무도 포함하고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21). 그러나 현재 발의된 법안들과 같이 유자격자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로 자격제도화가 된다면 심리·상담 전문직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모든 세세한 직무들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안성희 등, 2022). 그러므로 자격제도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수행하는 여러 업무의 범위 중 가장 핵심적으로 수행하며(그리고 수행하기를 서비스 수요자에게 기대받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범위가 정교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와 NCS 등에서 심리·상담 전문직의 직무영역으로 도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수행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영역(예: 심리연구 및 개발)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의 독립적 권한을 법률로써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와 자격의 명칭, 전문적 심리서비스의 범위와 구체적인 업무영역에 대한 상담심리사 집단과 일반인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법제화의 논의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추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에는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자 집단 중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집단으로부터만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자는 이외에도 한국임상심리학회의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 매체 치료 관련 직업단체 소속 치료사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에 본 연구의 결과가 다양한 직업의 인식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확대된 연구가 필요하다. 여러 직업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관 직업 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 범위 및 영역에 대한 판단은 연구 참여자 개인의 인식에 근거하여 각 영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해나 편견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심리·상담서비스의 법제화와 자격제도의 도입에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식 조사의 수준을 넘어 다양한 직업의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심층연구가 요구된다. 델파이 조사,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등

방법을 활용하여 직업 전문가들이 심리·상담 제도화의 영역과 업무범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견해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제공자 집단의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근거자료들이 수집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일반인을 함께 그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비교적 주기적으로 수행됨으로써(예: Elsworth & Foster, 2017; Fall et al., 2000; Nunnally & Kittoss, 1958; Schindler et al., 1987), 사회 속에서 심리·상담 서비스와 전문직종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바람직하게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끊임없이 탐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국내에서 심리·상담 서비스와 전문직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최근의 몇몇 사례(예: 최혜윤, 김은하, 2021a, 2021b)를 제외한다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본 연구가 심리·상담 분야의 제도화라는 당면과제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두고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인의 시각을 살펴봄으로써 심리·상담 분야가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가 지속되어 우리 분야를 바라보는 내·외부의 시각 차이, 이를 좁혀나가기 위한 노력의 방향에 관한 탐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21).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 계획(2021~2025).

- 교수신문 (2022.11.22.). 왜 이렇게까지 열중 할까... “너 MBTI 뭐야?” MZ세대 소통의 수단.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96968> 에서 2023.01.07. 검색.
- 구본경, 김원식, 박선구, 박종오, 윤성민 (2021). 임상병리사 명칭 변경을 위한 타당성 연구.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53(1), 105-121.
- 국립국어원 (n.d.). “병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B%B3%91%EB%A6%AC>에서 2023.01.06. 검색.
- 국립국어원 (n.d.). “심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C%8B%AC%EB%A6%AC#>에서 2023.01.06. 검색.
- 국립국어원 (n.d.). “상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C%83%81%EB%8B%B4>에서 2023.01.06. 검색.
- 국민일보 (2022.05.23.). “무조건 합격이세요” 영터리 심리상담사, 기자도 뺐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03881&code=61121111&sid1=soc> 에서 2022.12.27. 검색.
- 국민일보 (2022.06.09.). 심리사냐 상담사냐... 심리상담, 법이 없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59178&code=61121111&cp=nv> 에서 2022.08.01. 검색.
- 권정혜 (2007). 한국 임상심리학자들의 역할과 활동: 2007년 조사 보고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2), 573-581.
- 김계현 (1994). 상담심리학의 최근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6(1), 142-165.
- 김민지 (2013). 법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연구 영역 및 법심리학자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법*, 23(4), 125-142.
- 김영수 (2021). 한국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목회상담의 한계와 지향점. *신학논단*, 103, 7-34.
- 김인규 (2018). 국내 상담자격의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475-493.
- 김재훈, 서영석, 석범진, 조부휘 (2020). 프랜차이즈 상담센터에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역할갈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297-1323.
- 박애선, 황미구 (2008). 한국 상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발전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903-929.
- 박철형, 김영근, 송현구, 라수현 (2022). 국민 마음건강 증진 서비스 법제화 관련 용어 사용 현황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 ‘심리상담’, ‘심리서비스’, ‘심리사’ 키워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3(5), 1-19.
- 백옥선, 이상윤 (2019).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Ⅱ).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서영석, 안하얀 (2022). 상담의 전문직화: 법제화를 위한 상담계 내 일치된 노력의 중요성. *상담학연구*, 23(1), 1-15.
- 서울신문 (2022.04.04.). (사)한국심리학회 “심리상담사 법안 발의 반대... OECD 수준 심리서비스법 제정 촉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04500057> 2023.01.04. 검색.
- 성현모, 이장희, 이은수, 박종성, 이상민 (2022).

- 심리·상담 분야 국가자격증 명칭 탐색. *교육치료연구*, 14(2), 141-158.
- 소희영, 김정화, 박지원, 임난영 (2009). DACUM기법을 이용한 재활간호사의 직무 분석. *재활간호학회지*, 12(1), 16-29.
- 손난희, 김은정 (2007). 한국 사람들의 상담가에 대한 이미지. *상담학연구*, 8(2), 483-492.
- 신윤정, 이지연 (2021). 심리상담서비스 국가자격 관리 방안 제언: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4), 39-49.
- 신혜중 (2015). 가족 상담 및 치료의 현황과 과제: 일 학회 발표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3(4), 781-800.
- 안성희, 성현모, 김보람, 이상민 (2022). 업무독점형 vs. 능력인정형: 심리상담 민간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어떤 형태의 자격이 필요한가? *상담학연구*, 23(5), 21-36.
- 안수정, 안하얀, 서영석 (2021). 상담전문가의 정체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1), 113-158.
- 안하얀, 이소연, 서영석, 안수정 (2019). 한국상담심리학회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학회원들의 인식 II: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SWOT 분석 결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1407-1439.
- 연규진, 이지미, 이수정, 이동형 (2016).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7(5), 243-267.
- 오현수, 김진숙 (2012). 내담자의 상담요청 결정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4), 781-805.
- 이대승 (2020).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인의 서구 심리학 수용 - 니시 아마네와 옌용정의 'mental philosophy', 'psychology' 번역을 중심으로 -. *동서철학연구*, 98, 205-232.
- 이만우 (2021). 비의료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 통합을 위한 원칙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1856호.
- 이문기 (2017). 영성과 종교에 대한 상담심리학자의 인식과 실천: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목회와 상담*, 29, 133-165.
- 이아라, 이은설, 박수원 (2021). 온라인 플랫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심리상담 및 심리상담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2), 607-630.
- 조민경, 장유진 (2020). 상담의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대학 교원의 인식. *교원교육*, 36(2), 17-49.
- 중앙일보 (2022.04.07.). 코로나 시대 심리상담 뚝지만 품질 딜레마, 학계도 공방 중.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1732> 에서 2022.12.27. 검색
- 최윤경 (2004). 한국 상담자의 전문업무에 관한 연구. *미래교육학연구*, 17(2), 147-173.
- 최윤미 (2003). 한국 상담전문가의 역할과 직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179-200.
- 최정아 (2021). 심리상담 법제화 추진 동향 및 쟁점. *상담학연구*, 22(4), 11-27.
- 최정화, 김경희, 차순정, 표혜정, 김영경 (2010). 웃음치료가 유방절제술 환자의 기분, 통증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임상간호연구*, 16(1), 83-93.
- 최혜윤, 김은하 (2021a). 상담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인접분야 전문가, 점술가 및 민속신앙 종사원과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4), 1477-1499.
- 최혜윤, 김은하 (2021b). 상담전문가에 대한 상

- 담전문가와 일반대중 간의 인식 비교. *상담학연구*, 22(6), 139-165.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1). 국가직무능력표준(세분류: 심리상담). <https://ncs.go.kr>
- 한국상담심리학회 (2022.05.31.). 제1차 법제화에 대한 설문조사. <https://krcpa.or.kr>.
- 한국상담심리학회 (2022.06.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참여 확정. <https://krcpa.or.kr>.
- 한국상담학회 (2022.05.09.). (사)한국상담학회 심리사법안 반대 성명. <https://counselors.or.kr>.
- 한국상담학회 (2022.09.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의체 3차 회의 보고. <https://counselors.or.kr>.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22). About us - ACA divisions. <https://www.counseling.org/about-us/divisions-regions-and-branches/divisions>. 에서 2022.12.27. 검색
- Buckman, L. R., Nordal, K. C., & DeMers, S. T. (2018). Regulatory and licensure issues derived from the Summit on Master's Training in psychological practic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9(5-6), 321-326.
- Cosso, J., von Suchodoletz, A., & Yoshikawa, H. (2022).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programs on young children's academic and social-emotional outcomes: A meta-analy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6(8), 1329-1339.
- de Witte, M., Pinho, A. D. S., Stams, G. J., Moonen, X., Bos, A. E. R., & van Hooren, S. (2022). Music therapy for stress reduc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Health Psychology Review*, 16(1), 134-159.
- Ebsworth, S. J., & Foster, J. L. H. (2017). Public perceptions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Stigma by association? *Journal of Mental Health*, 26(5), 431-441.
- Fall, K. A., Levitov, J. E., Jennings, M., & Eberts, S. (2000). The public perception of mental health professions: An empirical examination.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2(2), 122-134.
- Farberman, R. K. (1997). Public attitudes about psychologists and mental health care: Research to guide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ublic education campaig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8, 128-136.
- Fitzgerald, L. F., & Osipow, S. H. (1986). An occupational analysis of counseling psychology: How special is the specialty? *American Psychologist*, 41(5), 535-544.
- Floyd, M. (2003). Bibliotherapy as an adjunct to psychotherapy for depression in older adul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9(2), 187-195.
- Foxhall, K. (2000). APA is key to anti-stigma campaign: A White House initiative aimed at teens seeks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APA Monitor on Psychology*, 31(7), 48-49.
- Gazzola, N., & Smith, J. D. (2007). Who do we think we are? A survey of counsellor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ment in Counseling*, 29, 97-110.
- Goodyear, R. K., Cortese, J. R., Guzzardo, C. R., & Allison, R. D. (2000). Factors, trends, and topics in the evolution of counseling psychology train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8(5), 603-621.
- Hook, J. N., Worthington Jr, E. L., Davis, D. E.,



- Jennings, D. J., Gartner, A. L., & Hook, J. P. (2010). Empirically supported religious and spiritual therapi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6*(1), 46-72.
- Hurst, J. C. (1999). Stone cutter of the crown jew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7*(1), 104-110.
- Ivey, A. E. (1979). Counseling psychoogy: The most broadly-based applied psychology specialt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8*(3), 205-260.
- Kaplan, D. M., & Gladding, S. T. (2011). A vision for the future of counseling: The 20/20 Principles for unifying and strengthening the profes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9*(3), 367-372.
- Lee, J. Y., & Shin, Y. J. (2020).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predict Korean college students' help-seeking intention. *The Journal of Behavioral Health Services & Research, 49*, 76-90.
- Lilienfeld, S. O. (2012). Public skepticism of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67*(2), 111-129.
- Lin, Y. W., & Bratton, S. C. (2015). A meta-analytic review of child-centered play therapy approach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3*(1), 45-58.
- Lowenthal, P., & Wilson, B. G. (2010). Labels do matter! A critique of AECT's redefinition of the field. *TechTrends, 54*, 38-46.
- Martinez, A. D., Laird, M. D., Martin, J. A., & Ferris, G. R. (2008). Job title infl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8*, 19-27.
- Merriam-Webster. (n.d.). "Psychology". In *Merriam-Webster.com Dictionary*. Accessed 6 January, 2023, from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psychology>.
- Merriam-Webster. (n.d.). "Psychologist". In *Merriam-Webster.com Dictionary*. Accessed 6 January, 2023, from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psychologist>.
- Morrill, W. H., Oetting, E. R., & Hurst, J. C. (1974). Dimensions of counselor functioning.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2*(6), 354-360.
- Nunnally, J., & Kittoss, J. M. (1958). Public attitudes toward mental health professions. *American Psychologist, 13*(10), 589-594.
- Richardson, L. A. (2001). Seeking and obtaining mental health services: What do parents expec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5*(5), 223-231.
- Ray, D. C., Armstrong, S. A., Balkin, R. S., & Jayne, K. M. (2015). Child-centered play therapy in the schools: Review and meta-analysis. *Psychology in the Schools, 52*(2), 107-123.
- Sabeena, P. K., & Kumar, V. S. (2022). Psycho-social intervention for managing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A meta-analysis. *Journal of Evidence-Based Psychotherapies, 22*(2), 1-30.
- Schindler, F., Berren, M. R., Hannah, M. T., Beigel, A., & Santiago, J. M. (1987). How the public perceives psychiatrists, psychologists, nonpsychiatric physicians, and members of the clergy.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 Practice*, 18(4), 371-376.
- Schouten, K. A., de Niet, G. J., Knipscheer, J. W., Kleber, R. J., & Hutschemaekers, G. J. (2015). The effectiveness of art therapy in the treatment of traumatized adults: A systematic review on art therapy and trauma. *Trauma, Violence, & Abuse*, 16(2), 220-228.
- Society of Counseling Psychology (n.d.). *SCP mission and values*. <https://www.div17.org/mission-values>
- van der Wal, C. N., & Kok, R. N. (2019). Laughter-inducing therapie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Social Sciences & Medicine*, 232, 473-488.
- Vogel, D. L., & Wester, S. R. (2003). To seek help or not to seek help: The risk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3), 351-361.
- Waltz, T. J. (2021). Scope of practice and standards of training across the clinical professions. In A. Maragakis, C. Drossel, T.J. Waltz (Eds.), *Applications of behavior analysis in healthcare and beyond* (pp. 21-39). Switzerland: Springer.
- Worthington Jr, E. L. (1986). Religious counseling: A review of published empirical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4(7), 421-31.
- Zhao, J., Yin, H., Zhang, G., Li, G., Shang, B., Wang, C., & Chen, L. (2019). A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of laughter and humour interventions on depression, anxiety and sleep quality in adul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75(11), 2435-2448.
- Zyromski, B., Hudson, T. D., Baker, E., & Granello, D. H. (2019). Guidance counselors or school counselors: How the name of the profession influences perceptions of competence.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22(1), 1-10.

원 고 접 수 일 : 2022. 10. 11

수정원고접수일 : 2023. 02. 06

게재결정일 : 2023. 02. 06

## Exploring the Name, Scope, and Task of Psychology and Counseling Services: Based on the Perceptions of the Counseling Psychologists and the General Public

Hyunmo Seong<sup>1)</sup>      NanMee Yang<sup>2)</sup>      Jae Pil Ha<sup>3)</sup>      Sang Min Lee<sup>4)</sup>

<sup>1)</sup>Korea University Doctoral Student      <sup>2)</sup>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sup>3)</sup>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sup>4)</sup>Korea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counseling psychologists and the general public regarding the proposed psychology and counseling-related bills in 2022.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d their preferences for the name, scope, and tasks of psychology and counseling services. Data collected from 882 counseling psychologists affiliated with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and 799 ordinary adults indicated that both groups preferred the terms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counselor” as the names for the service and the national certificate, respectively. Counseling psychologists recognized that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as well as art, play, and music therapies, could be included, while the general public believed that most fields other than religious counseling could be considered professional services. Both groups considered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treatment the most important task, followed by psychological testing and evalu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directions for reaching a consensus on the legislation was discussed.

*Key words* : Psychology and counseling service, National certificate, Counseling Psychologist, Public perception, Task analysis